

2014. 8. 21(목) (온라인 8. 21(목)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최희연 사무국장 02-563-2014
미디어 센터 02-6288-6342, 02-6288-6309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성황리에 폐막

역대 최다국 참여, 일반 대중들의 호평 이어져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박형주)는 서울 코엑스에서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9일간 열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 122개국(자치령 포함) 5,200여명 (국내 2,645명, 국외 2,572명)이 등록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는 세계수학자대회 역사상 최다국과 최대인원이 참여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나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첫 여성 필즈상 수상자와 개발도상국에서 학위를 받은 첫 필즈상 수상자가 배출되어 남성과 유럽 중심의 세계수학계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대회 개막식에서는 세계수학자대회 전통에 따라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이 필즈상 등 주요 상을 시상하고 세계 수학자들을 격려했으며 축사를 통해 미래발전을 이끌 핵심 학문인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기조강연자 황준묵 교수(고등과학원)와 강석진 교수(서울대), 김범식 교수(고등과학원), 김병한 교수(연세대), 이기암 교수(서울대), 하승열 교수(서울대) 5명이 초청강연자로 선정되고 조직위원장 박형주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한국 수학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술 강연으로는 필즈상을 비롯한 주요 상 수상강연(7회), 기조강연(21회), 초청강연(178회), 패널토론(6회), 일반강연(662회), 포스터발표(388회) 등 총 1,262회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 9일간 진행된 수학 축제의 막을 내리는 폐막식에서는 수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아르헨티나의 수학자 아드리안 파엔자(Adrián Paenza) 교수에게 릴라바티상이 수여되고, 다음 세계수학자대회 개최국인 브라질에서 2018년에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 폐막식 하루 전인 20일에 릴라바티상 수상자인 아드리안 파엔자 교수는 “The Wrong Door” 라는 주제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파엔자 교수는 수학이 어렵다는 편견은 잘못된 문(The Wrong Door)을 통하여 수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파엔자 교수는 수학이 실제로는 아주 즐겁고 친근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수학자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지식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철학을 역설하며 교육의 공익성을 부각시켰다.
 - 차기 세계수학자대회 개최국인 브라질(ICM 2018 조직위원장 마르셀로 비아나(Marcelo Viana))은 국제수학연맹(차기 회장 시게후미 모리(Shigefumi Mori))과 함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개발도상국의 수학자들이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 “나눔으로 희망이 되는 축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개발도상국 수학자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나눔(NANUM) 프로그램을 통해 85개국 662명 개발도상국 수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이 최신 수학을 접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의 수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대회에서는 개발도상국 수학발전에 대한 MENAO(Mathematics in Emerging Nations: Achievement and Opportunities)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장학금을 제정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대중강연과 바둑행사, 그리고 다양한 대중전시회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수학과 최신 3D 기술을 결합한 대중전시회인 IMAGINARY가 매우 큰 인기를 끌었다.
 - 세계적 석학들의 대중강연, 프로기사와 수학자와의 다면기 대국이 펼쳐진 바둑 이벤트, 수학 관련 영화 상영회, 3차원 수학영상 체험 전시회 등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20,000여명이 참여하여 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바둑행사는 국내 일반 참가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바둑을 게임이론 등 수학적인 개념을 써서 설명한 강연과 다면기 대국은 큰 호평을 받았다.
- 박형주 조직위원장은 “젊고 총명한 수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의 강연을 접하고 수학 문화 행사에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한국 수학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고 수학대중화의 전기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라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소감을 밝혔다.

- 김명환 대한수학회장은 “우리 수학계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수학 최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 미래부 관계자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 수학역량 강화와 수학 대중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붙임 1. 역대 ICM 개최국 참가자 수

2.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요

3.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요 결과

역대 ICM

• 제1차	1897	 취리히(스위스)	16개국 208명 참가
• 제2차	1900	 파리(프랑스)	26개국 250명 참가
• 제3차	1904	 하이델베르크(독일)	19개국 336명 참가
• 제4차	1908	 로마(이탈리아)	22개국 535명 참가
• 제5차	1912	 캠브리지(영국)	28개국 574명 참가
• 제6차	1920	 스트라스부르(프랑스)	27개국 200명 참가
• 제7차	1924	 토론토(캐나다)	28개국 444명 참가
• 제8차	1928	 볼로냐(이탈리아)	36개국 836명 참가
• 제9차	1932	 취리히(스위스)	35개국 667명 참가
• 제10차	1936	 오슬로(노르웨이)	36개국 487명 참가
• 제11차	1950	 케임브리지(미국)	40개국 1,700명 참가
• 제12차	1954	 암스테르담(네덜란드)	51개국 1,553명 참가
• 제13차	1958	 에든버러(영국)	1,658명 참가
• 제14차	1962	 스톡홀름(스웨덴)	57개국 2,107명 참가
• 제15차	1966	 모스크바(소비에트 연방)	53개국 4,280명 참가
• 제16차	1970	 니스(프랑스)	60개국 2,811명 참가
• 제17차	1974	 밴쿠버(캐나다)	70개국 3,120명 참가
• 제18차	1978	 헬싱키(핀란드)	83개국 4,000명 참가
• 제19차	1983	 바르샤바(폴란드)	65개국 2,450명 참가
• 제20차	1986	 버클리(미국)	79개국 3,711명 참가
• 제21차	1990	 교토(일본)	76개국 4,498명 참가
• 제22차	1994	 취리히(스위스)	92개국 2,476명 참가
• 제23차	1998	 베를린(독일)	98개국 3,346명 참가
• 제24차	2002	 베이징(중국)	101개국 4,270명 참가
• 제25차	2006	 마드리드(스페인)	108개국 3,425명 참가
• 제26차	2010	 하이데라바드(인도)	109개국 3,175명 참가

- 세계수학자대회(ICM :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 국제수학연맹(IMU)이 개최하고 전 세계 수학자들이 참가하는 기초 과학 분야 최대 국제학술대회(4년주기)
 - ※ 일본('90), 중국('02), 인도('10)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 개최
 - 필즈상(Fields Medal*) 시상, 수학 난제 제시, 최고 수준 학술논문 발표 등 전 세계 수학자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자 수학자들의 축제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SEOUL ICM 2014)
 - (일시/장소) '14. 8. 13(수) ~ 21(목), 서울 코엑스(COEX)
 - (추진체계) 국제수학연맹 주최/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주관/미래창조과학부 후원
 - (대회주제) 나눔으로 희망이 되는 축제 : Dreams and Hopes for Late Starters
 - ※ 나눔(NANUM) 2014: 개발도상국 수학자들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학술 ODA
- 주요내용
 - (수학분야 주요 상 시상) 필즈상 4명, 네반리나상(수리정보과학) 1명, 가우스상(응용수학) 1명, 천상(기하학) 1명 등 7명
 - ※ 필즈상(Fields Medal) : 수학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수상연도 기준 40세 미만의 뛰어난 업적을 낸 수학자에게 4명 이내로 수여('36년~ 총 52명 수상)
 - (학술행사) 필즈상 등 주요 상 수상강연, 기조강연, 초청강연, 패널 토론, 일반강연(구두포스터) 등 학술 강연
 - ※ 기조강연(고등과학원 황준묵 교수), 초청강연(강석진 교수(서울대), 김범식 교수(고등과학원), 김병한 교수(연세대), 이기암 교수(서울대), 하승열 교수(서울대), 총 5명)
 - (부대행사) 세계적 석학의 대중강연, 수학영화상영, 수학과 바둑 이벤트, IMAGINARY 체험전 등 전시회

□ 주요 실적

- 등록 참가자 : 학술대회 유료 참가자
 - 5,217명 : 해외 2,572명(나눔 프로그램 참가자 662명 포함), 국내 2,645명
 - ※ 대중강연 등 수학문화행사 참가자 20,000여명
- 학술 강연 : 수상강연 7회, 기조강연 21회, 초청강연 178회
- 언론보도실적(' 14.7.14~8.21 오후 1시 30분 기준) : KBS 9시 뉴스 등 총 1,457건
 - 방송/통신 423건, 주요 일간지 204건, 전문지 및 온라인 기사 830건
- 대중강연 1(연사: 제임스 사이먼스) 참가자: 총 4,600명
 - 바둑대중강연 참가자: 총 600명
 - 대중강연 2(연사: 아드리안 파엔자) 참가자: 총 1,022명
- 전시회 사전 및 현장접수: 총 11,973명
- 자원봉사자 및 운영요원: 총 410명

□ 개막식

- 일시/장소 : ' 14.8.13 09:30 ~ 11:30 / COEX D홀
- 주요내용 : 필즈상 등 주요 상 시상, VIP 축사, 환영사
- 참석자 : VIP,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수학연맹 회장, 조직위원장, 필즈상 수상자 등 3,300여명

[참고] 주요 상 수상 결과

구분	이름	소속/직책	비고
필즈상	아르투르 아빌라 (Artur Avila)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석학연구원	
	만줄 바르가바 (Manjul Bhargava)	프린스턴 대학, 석좌교수	
	마틴 헤어러 (Martin Hairer)	Warwick 대학, 교수	
	마리암 미르자카니 (Maryam Mirzakhani)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최초의 여성수상자
네팔리나상	수브하시 코트 (Subhash Khot)	뉴욕대학 쿠랑연구소, 컴퓨터학과교수	
가우스상	스탠리 오셔 (Stanley Osher)	UCLA, 교수	
천상	필립 그리피스 (Phillip Griffiths)	프린스턴 고등연구원, 명예교수	
릴라바티상	아드리안 파엔자 (Adrián Paenza)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교수	